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의 자기 조절학습 능력과 영어 성취도에 관한 연구

신명희^{1*}

¹한남대학교 교양융복합대학

A Study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English learning achievement for students majoring in the science of nursing and other major

Myeong-hee Shin^{1*}

¹College for General & Integrative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가져온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의 타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서도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이 영어 성취도도 높은지 알아보하고자 2010년 3월 10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교양 영어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어떤 수준인지, 계열 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비슷한 성적의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 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고찰한 결과, 전공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고 영어 성취도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뚜렷한 목표지향성과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유발이 잘 되어있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훈련이 잘 되어있고 이는 결국 영어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on English learning achievement. A survey was conducted to the students majoring different fields of study in order to measure their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rom March 10, 2010 to June 10, 2010. The result indicates a strong correlation between students' English achievement and self-regulated learning factors such as cognitive, affective, and behavior regulation. The results revealed that instructional, and training interventions should be needed to have significant goal-orientation, to maintain motivation, and to have self confidence from On-line and Off-line blended teaching for the successful English learning.

Key Words : Self-regulated learning, Goal-orientation

1. 서론

현대를 살아가는 학습자들은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로 인하여 학습자 자신의 적극적 참여와 통제 없이는 효과적인 학습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학습자가 학습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학습자의 능동적인 역할이 중요시되는 자기조절학습은[1] 구성주의의 패러다임에 맞춘 자기

주도학습과 함께 현재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기 주도학습이 학습자의 주도적인 자유 의지를 강조한다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의 자율적 통제권을 강조하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의 열린교육을 지향하는 추세에 있어서 자기조절학습의 환경 설계는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고,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기초로 스스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고 개발할 필요가

*교신저자 : 신명희(scindy@hnu.kr)

접수일 11년 07월 20일

수정일 (1차 11년 08월 16일, 2차 11년 09월 07일)

게재확정일 11년 09월 08일

있다. 이를 위해 자기 스스로 의미 있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자신의 학습과정을 전략적으로 주도하는 자기조절학습은 필수적 능력이라고 보여진다[2].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서 대학생 영어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대학 교양 영어 수업의 성취도와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리나라 교양 영어 교과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낮으며 교육내용 역시 학생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교양 영어 수업을 이수한다고 해도 일정한 영어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선행연구[3]에서의 지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실 환경에서 학습자는 스스로 학습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보다 시키는 것을 이행하는 수동적인 존재로서의 역할이 훨씬 강했다고 볼 수 있다.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나 동기를 가지고 주어진 전략을 사용하여 학습을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가르치는 교사나 안내자 없이는 스스로 학습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4]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이러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교양 영어 교육에 접목이 된다면 영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3] 주장에 주목을 하고자한다.

자기조절학습에 사용되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인지조절로서 자신의 인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 동기조절로서 자기조절학습은 본질적으로 동기적인 요소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인지활동에 적극적이다 할지라도 목표를 수반한 동기가 없다면 자기조절학습은 어려울 것이다. 자기조절학습과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은 동기적인 측면의 변인들을 제안하고 있는데, 학습을 기본적인 목적 지향적인 활동으로 보는 목적지향성(goal orientation), 학습자가 주어진 학습상황에 대처하여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가져올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효능(self-efficacy)[5] 등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셋째, 행동조절로서 자기조절 학습에 있어서 실질적 측면의 행동조절은 학습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 행동의 통제, 2) 시간 관리, 그리고 3) 도움 구하기 등을 포함한다[6]. 이러한 행동조절에는 개인차가 존재하고[7],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학습자들은 다양한 학습 전략을 통해서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간다.

영어교육이나 교육학 분야에서는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 보다는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이 활발히 연구되어 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웹 활용 자기조절학습 능력 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웹 기반 정보 탐색, 과제중심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쳤다는 결과[8]가 나왔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수업 시에도 자기조절 학습 능력이 오프라인만으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보다 더 유의미하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9].

본 연구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결과를 가져온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에 관한 선행연구[10]의 타당성이 다른 연구 대상자에게서도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간호학과 학생과 일반학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고찰하였다. 또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학생이 영어 성취도도 높은지를 알아보고자 교양 영어 과목을 수강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은 어떤 수준인지, 계열 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알아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청남도 소재의 A 대학교에서 교양 영어를 수강하고 있는 1학년 두 개 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0년 3월 10일부터 2010년 6월 10일까지 실시되었다. 교양 영어 수업을 수강한 학생들 중 학기 시작전의 진단평가 성적이 비슷한 1학년 두 개 분반을 랜덤 샘플링 하여 간호학과 52명과 일반학과(글로벌경영 계열: 관광, 경영, 금융 국제 전공) 50명 중 시험에서 누락된 9명을 제외한 41명 총 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 도구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측정하기위한 도구로는 Pintrich와 동료들이 개발한 MSLQ(Motivated Strategies for Learning Questionnaire) 척도를 사용한 자기조절 학습 설문지[11]를 사용하였고 자기조절 이론 모형 역시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을 구성 요소로 하는 모형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의 신뢰도(Chronbach's α)는 $\alpha=.94$ 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낸다[11].

교양 영어 수업 설계에 있어서 정규 토익에서 우수한 성적을 성취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학습을 하는 것을 수업 목표로 하여 각 분반이 동일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병행되어 진행되었고 학기 시작 후 6주차의 모의 토익(100문항) 점수로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자기조절학습의 영역 별 문항 분류는 표 1과 같이 인지, 동기, 행동 조절 세 영역에 다시 6개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총 6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자기조절학습 영역별 문항

[Table 1] The questions in the self-regulated learning

영역 (N)	하위영역 (N)	문항 번호
인지 조절 (18)	학습내용의 기억 (11문항)	1 4. 6. 7. 11. 12. 15. 18. 19. 21. 22
	이해정도 확인 (7문항)	2. 9. 16. 17. 20. 24. 25
동기 조절 (22)	흥미 동기부여 만족(13문항)	28. 29. 31. 32. 34. 35. 37. 39. 40. 41. 42. 43. 47
	시간과 에너지투자(9문 항)	30. 33. 36. 38. 45. 49. 50. 52. 54
행동 조절 (25)	시간관리 (12문항)	56. 57 59. 62. 64. 67. 68. 70. 71. 72. 74. 84
	학습지속력 (13문항)	60. 65. 66. 69. 75. 76. 77. 78. 79. 80. 81. 82. 83

2.3 분석 방법

간호학과 학생들과 일반학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영어 성취도에 관한 분석은 교차분석과 t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2.4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연구 대상이 1학년 2개 학과로 랜덤 샘플링을 하였으므로 연구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둘째, 여학생과 남학생의 일반적 분포는 보았지만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성이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연구가 진행이 되었다.

연구 대상의 영역 확대와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성과 비율을 고려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연구를 전체에 적용시켜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간호학과 학생들과 일반학과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표 2), 총 93명중, 간호학과 52명, 일반학과 41명(총 50명중 누락된 9명 제외)으로 간호학과가 많았다.

[표 2] 전공계열에 따른 일반적인 특성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in majors

문항/변인	계열		합계 (N=93)N (%)
	간호 (N=52) N(%)	일반 (N=41) N(%)	
성별	남	10(19.2)	35(37.6)
	여	42(80.8)	58(62.4)
나이	20	51(98)	84(90)
	21	1(2)	9(10)
합계	성별	52(100)	93(100)

성별로는 여자 62.4%, 남자 37.6%로 남자보다 여자가 많았으며, 학과별로는 간호학과는 여자가 일반학과는 남자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간호학과는 경우 20세가 총 52명 중 51명(98%)이고 21세가 총 52명중 1명(2%)의 분포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학과는 경우 20세가 총 41명 중 33명(80%)이고 21세가 총 41명 중 8명(20%)의 분포를 보였다.

3.2 인지조절 영역

자기조절학습 측정을 위한 문항 분석 중 인지조절 영역은 1) 학습내용의 기억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2) 이해정도 확인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학습내용의 기억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능력을 특성에 있어서 인지조절 영역 중 학습내용의 기억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은 총 11문항 중, 단기기억에 관한 11번 문항(나는 공부할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내용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은 3.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내용암기에 관한 21번 문항(공부할 때 될 수 있는 한 많이 외우려 한다.)은 3.37점 요약질문에 관한 7번 문항(새로운 내용을 배울 때는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머릿속으로 상상 하면서 이해한다.)은 3.33점, 순이었으며 내용암기에 관한 6번 문항(노트나 교과서를 소리 내서 외운다.)이 2.2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내용암기에 관한 18번 문항(공부 할 때 교과서, 노트를 읽고 또 읽는다.)은 간호학과가 3.37점으로 그리고 일반학과가 2.95점으로 간호학과가 일반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5$).

[표 3]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능력 특성
[Table 3]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인지조절 영역-학습내용 기억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Cognitive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learning contents)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1 요약정리	3.21±1.35	3.07±0.88	0.496
4 자료의미부여	3.10±1.07	2.98±0.91	0.566
6 내용기억	2.63±1.05	2.27±0.78	0.065
7 요약질문	3.33±0.92	3.22±0.91	0.576
11 단기기억	3.48±1.02	3.59±0.86	0.601
12 자료의미부여	2.81±0.97	2.83±0.10	0.917
15 자료의미부여	3.31±1.00	3.20±0.87	0.570
18 내용기억	3.37±0.97	2.95±1.02	0.049*
19 요약질문	3.35±1.03	3.15±0.91	0.330
21 내용기억	3.37±1.03	3.22±0.94	0.472
22 자료의미부여	3.37±0.95	3.10±0.86	0.163

**p<.01 *p<.05

3.2.2 이해정도 확인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

인지조절영역 중 이해정도 확인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을 보면 총 6문항 중, 훑어보기에 관한 16번 문항(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것인지 순서를 정한 후에 시작한다.)이 3.4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훑어보기에 관한 24번 문항(나는 공부 시간 전에 공부할 분량을 미리 정한다.)과 9번 문항(나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할지를 미리 생각한다.)은 각각 3.38점, 3.35점, 순이었으며 자기 상태 체크에 관한 20번 문항(나는 공부에 집중하다가도 잠깐 멈추어서 현재 내용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 볼 때가 있다.)이 2.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훑어보기에 관한 2번 문항(나는 공부 시작 전에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 미리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다.)은 간호학과가 3.33점, 일반학도가 2.78로, 훑어보기에 관한 9번 문항은 간호학과가 3.35점, 일반학도가 2.88로, 자기 상태 체크에 관한 20번, 25번 문항(나는 공부하는 도중에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본다.)은 간호학과가 각각 2.98 3.31점, 일반학도가 각각 2.39, 2.85로 간호학과가 일반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4).

[표 4]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능력의 특성
[Table 4]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인지조절 영역-이해정도 확인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Cognitive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confirming understanding)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2 훑어보기	3.33±1.04	2.78±0.99	0.012*
9 훑어보기	3.35±1.12	2.88±0.90	0.032*
16 훑어보기	3.40±0.96	3.22±0.96	0.371
17자기상태체크	2.88±0.90	2.73±1.12	0.452
20자기상태체크	2.98±0.97	2.39±0.86	0.003**
24 훑어보기	3.38±0.99	2.98±0.99	0.051
25자기상태체크	3.31±0.85	2.85±0.85	0.012*

**p<.01 *p<.05

3.3 동기조절 영역

자기조절학습 측정을 위한 문항 분석 중 동기조절 영역으로는 1) 흥미 만족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2) 시간과 에너지투자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3.1 흥미 만족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

동기조절영역 중, 흥미 만족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을 살펴보았는데 총 13문항 중, 자기노력에 관한 35번 문항(나는 앞으로도 공부를 잘할 것이다.)이 3.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흥미, 만족에 관한 39번 문항(나는 새로운 것을 알았을 때 뿌듯함을 느낀다.)은 3.75점, 흥미, 만족에 관한 34번 문항(나는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중점을 둔다.)은 3.76점, 순이었으며 가치, 믿음에 관한 32번 문항(나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모두 이해 할 수 있다.)이 2.6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가치, 믿음에 관한 32번 문항에서 간호학과가 3.06점, 일반학도가 2.61점으로 간호학과가 일반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표 5).

[표 5]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능력의 특성
[Table 5]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동기조절 영역-동기, 흥미, 만족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Motivation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interest and satisfaction)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28 학습흥미	3.48±0.94	3.51±0.98	0.875
29 자기노력	2.94±0.96	2.98±0.86	0.862
31 흥미, 만족	3.00±0.97	3.17±1.32	0.474
32 가치, 믿음	3.06±1.13	2.61±0.78	0.032*
34 흥미, 만족	3.46±1.09	3.76±3.24	0.541
35 자기노력	3.71±1.07	3.83±1.12	0.607
37 가치, 믿음	2.92±1.08	2.88±0.87	0.829
39 흥미, 만족	3.75±0.81	3.59±0.97	0.377
40 가치, 믿음	3.06±0.94	2.88±0.99	0.371
41 흥미, 만족	3.13±1.10	2.98±1.06	0.484
42 자기노력	3.50±0.94	2.88±0.99	0.161
43 흥미, 만족	2.94±1.01	3.00±1.07	0.792
47 흥미, 만족	3.25±0.99	3.20±0.93	0.785

**p<.01 *p<.05

3.3.2 시간과 에너지투자에 관한 자기조절 학습 능력

동기조절영역 중 시간과 에너지투자에 관한 자기조절 학습을 살펴보면 총 9문항 중, 학교역할 인식에 관한 49번 문항(학교생활이 나의 미래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이다.)이 3.8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교역할 인식에 관한 54번 문항(학교생활이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이 3.78점, 과제물두에 관한 33번 문항(나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 3.67점, 순이었으며 에너지 투자에 관한 45번 문항(나는 우리 과의 다른 친구들에 비해 교과서 내용을 많이 알고 있다.)이 3.00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시간과 에너지투자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에 있어서는 계열별로는 간호학과와 일반학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표6).

[표 6]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능력의 특성
[Table 6]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동기조절 영역-시간과 에너지투자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Motivation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investment of energy)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30 과제물두	3.35±0.99	3.46±0.89	0.556
33 과제물두	3.67±0.94	3.41±0.89	0.183
36 목표인식	3.19±1.23	3.39±1.09	0.422
38에너지투자	3.54±0.98	3.56±1.03	0.914
45에너지투자	3.00±0.97	2.73±0.89	0.174
49학교역할인식	3.81±1.07	3.68±0.93	0.556
50학교가치인식	4.25±4.25	3.68±1.04	0.406
52학교가치인식	3.40±1.015	3.37±1.10	0.863
54학교역할인식	3.60±1.03	3.78±0.94	0.376

**p<.01 *p<.05

3.4 행동조절영역

자기조절학습 측정을 위한 문항 분석 중 행동조절 영역으로는 1)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2) 학습 지속력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4.1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

행동조절영역 중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을 보면 총 11문항 중, 인터넷 검색에 관한 84번 문항(숙제나 공부를 하다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을 찾아본다.)이 3.8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도움 청하기에 관한 71번 문항(나는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이 3.88점, 사전 검색에 관한 72번 문항(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사전을 찾아본다.)이 3.73점, 순이었으며 시간 관리에 관한 63번 문항(나는 효과적으로 공부하기 위해 공부시간을 확실히 정해둔다.)이 2.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계열별로는 학습 목표 설정에 관한 55번 문항(나는 몇 시간 동안, 얼마나 공부할 것인지 목표를 분명히 한 다음 공부를 시작한다.)에서 간호학과가 3.15점, 일반학과가 2.59점으로, 자료 검색에 관한 56번 문항(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도서관 등에서 다른 자료를 찾아본다.)에서 간호학과가 3.12점, 일반학과가 2.68점으로 간호학과가 일반학과가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표 7). 그리고 도움청하기에 관한 68번 문항(나는 수업 중에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교수님께 여쭙어 본다.)에서 간호학과 3.27점, 일반학과 2.68점, 사전 검색에 관한 74번 문항(나는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백과사전을 찾아본다.)에서 간호학과 3.27, 일반학과 2.65로 각각 간호학과가 일반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표 7).

(공부할 때 가족이 TV를 보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렵다.) 3.44점, 순이었으며 학습 지속능력에 관한 60번 문항(나는 마음먹은 공부는 끝장 실천하는 경우가 많다.)이 2.87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습 착수 어려움에 관한 76번 문항(나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시작하기가 어렵다.)에서는 간호학과가 2.94점, 일반학과가 3.40점으로 일반학과가 간호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일반학과의 학생들이 학습 착수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다. ($p < 0.05$)(표 8).

[표 7]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능력의 특성
[Table 7]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행동조절 영역-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Behavior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time management)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55 학습목표설정	3.15±0.87	2.59±0.87	0.002*
56 자료검색	3.12±1.00	2.68±0.88	0.032*
59 도움요청	3.62±0.97	3.51±0.98	0.614
63 시간관리	2.63±1.12	2.41±0.95	0.318
64 도움요청	3.27±0.93	2.98±0.96	0.140
67 정보구하기	3.42±1.24	3.29±0.72	0.551
68 도움요청	3.27±0.97	2.68±0.99	0.005**
70 도움요청	3.50±1.00	3.39±1.00	0.600
71 도움요청	3.88±1.08	3.46±1.03	0.059
72 사전검색	3.73±1.11	3.44±0.92	0.178
74 사전검색	3.27±1.20	2.65±1.03	0.010**
84 인터넷검색	3.73±1.01	3.80±0.82	0.726

** $p < .01$ * $p < .05$

3.4.2 학습 지속력에 관한 자기조절학습능력

행동조절영역 중, 학습 지속력에 관한 자기조절학습을 보면 총 14문항 중, 학습 착수의 어려움에 관한 79번 문항(나는 무엇부터 공부할 지 결정하기가 어렵다.)이 4.0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학습착수에 관한 77번 문항(나는 노는 것을 그만두지 못해 공부를 시작하기가 어렵다.)은 3.69점, 학습 집중의 어려움에 관한 82번 문항

[표 8]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 능력의 특성
[Table 8] Characteristics of learning ability in majors
 (행동조절 영역-학습 지속력에 관한 자기조절 학습)
 (Behavior Regulation: Self-regulated learning of learning persistency ability)

Unit:(mean±S.D.)

문항/변인	계열		P-value
	간호 (N=52) N(%)	일반 (N=41) N(%)	
60 학습지속능력	2.87±0.79	2.56±0.7	0.057
65 학습지속능력	2.94±1.00	2.59±0.74	0.059
66 학습지속능력	3.08±1.17	2.80±0.87	0.218
69 학습지속능력	3.02±1.06	2.71±0.96	0.144
75 학습지속능력	3.08±0.06	3.03±0.95	0.808
76 학습착수어려움	2.94±0.98	3.40±1.01	0.031*
77 학습착수어려움	3.69±4.38	3.28±1.01	0.556
78 학습집중어려움	3.13±0.98	3.43±0.87	0.141
79 학습착수어려움	4.04±7.15	3.25±1.03	0.491
80 학습지속능력	3.21±0.96	2.98±0.97	0.246
81 학습집중력	3.00±1.09	2.63±0.95	0.087
82 학습집중어려움	3.44±1.09	3.18±1.15	0.259
83 학습착수어려움	3.35±1.20	3.00±1.01	0.147

** $p < .01$ * $p < .05$

3.5 교양영어 성취도 평가

간호학과와 일반학과의 교양영어성취도 평가 결과(표 9) 간호학과와 일반학과의 성취도 평균값이 일반학과의 점수 보다 7.92의 차를 보이고 p 값이 $p < 0.001$ 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표 9] 모의토익 성취도 결과

[Table 9] The result of achievement in English TOEIC pretest

계열	성취도 평균값	표준 편차	t	p
간호 (N=52)	78.67 (100)	7.28	10.61	0.0001***
일반 (N=41)	70.75 (100)	7.05		
점수차	7.92	4.57		

*** $p < .001$

4. 고찰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공과대학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수준에 있어서 학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는 선행연구[10]의 타당성이 다른 대상자에게서도 타당한지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현상을 설명하고자 고안된 자기조절학습은 학습자들이 만나게 되는 다양한 학습 태도와 학습 방법의 여러 상황에서 요구되는 자기조절 능력을 통해 학업이 향상되고 성취를 얻을 수 있다는 이론[3]을 바탕으로 전공 계열 별(간호학과와 일반학과)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전공 계열 별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차이가 교양 영어 성취도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바 (표 5)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간호학과 학생들과 일반학과의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분석 결과, 뚜렷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수업 후, 내용 기억, 요약질문, 오답노트 작성과 같은 자기 상태 체크와 같은 인지조절 영역의 학습 능력에서 일반학과에 비해 통계상 유의성을 보였다. 동기 조절 영역에서는 크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는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모두 이해 할 수 있다와 같은 가치 믿음을 묻는 질문(32번 문항)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행동조절 영역에서 시간 관리에 관한 자기조절학습 능력과 학습 목표 설정(55번 문항) 능력에 있어서 간호학과가 일반학과 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 시에 지켜져야 하는 시간관리, 학습지속력 등은 뚜렷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같은 학습자의 내적인 욕구가 학습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는 선행 연구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슷한 성적의 두 집단을 동일한 조건 하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하면서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고찰한 결과, 전공 계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고 영어 성취도 역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뚜렷한 목표지향성과 학습에 대한 내재적 동기 유발이 잘 되어있는 학생의 경우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 능력의 훈련이 잘 되어있고 이는 결국 영어 성취도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일반학과 학생들보다 학습의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알고 학습함[13]으로써 이미 학습에 대한 내재적인 동기 유발이 잘되어 있으며 학습의 흥미와 만족감이 높아서 학습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결과를 나타내주었다. 이는 영어 성취도 평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숙달, 목표 지향적인 자기조절학습 설계 방안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학습을 통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선행연구에서도 밝힌 바 [14] 대학에서의 교양 영어 수업에 있어서도 학습자 개인의 개인차를 고려해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훈련시킬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더 효과적인 학습의 결과를 위해서 수동적인 학습 태도에서 탈피해 학습 목표나 과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책임을 학습자에게 부여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흥미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자기점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높은 학습 성취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로서 자기 조절 학습의 인지조절, 동기조절 행동조절의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교수 프로그램 개발과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 수업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교과과정 개발과 교수 설계 등이 이루어진다면 더 심층적, 긍정적인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학생들에게 자기조절학습 능력을 훈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방법의 연구와 적용 기회들을 많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후속 연구를 제언해 본다.

Reference

- [1] Zimmerman B. J.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In B. J.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 achievement, New York: Springer, pp.1-25. 1986.
- [2] Brooks, D. W. Web-teaching. Plenum Press. New York & London, 1997.
- [3] Myong-Hee Seong, Hyung-Ji Chang, Hyun-jin Kim, Needs analysis of university students for the general English curriculum development, Modern english Education, Vol. 8(3), pp. 318-340, 2007.
- [4] Zimmerman B. J.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Which are the key subprocesse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1. In B. J. Zimmerman & D. H. Schunk (Ed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New York: Springer, pp. 1-25. 1986.
- [5] Schunk, D.H. Inherent details of self-regulated learning including student perceptions.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pp. 207-23. 1995.
- [6] Myong-hee Yang, The Study on Conceptualization of Self-Regulated Learning using LISREL, .The Society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6(2), pp.259-290, 2002.
- [7] Kuhl, J. Volitional mediators of cognition-behavior consistency: Self- 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In: J. Kuhl and J. Beckmann, Editors, Action 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Springer-Verlag, Berlin, pp. 101 - 128. 1985.
- [8] Yun-jung Park, (The) Effects of Task Based Learning as the Self-Regulation Ability on the Information Seeking in Web, Ewha Woman's University, 2002.
- [9] Jung-Hoon Leem, Effects of Blending Type of Online-Offline and Reflective Activity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Achievements in Higher Education Course Based on Blended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3(4), pp. 49-57, 2007.
- [10] Min Hee Shin, A Study on the Level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for Engineer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12(4), 2009.
- [11] Myong-hee Yang, A study on modeling and validity of self-regulated lear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0.
- [12] Schunk, D.H. Self-efficacy and academic motivation, Educational Psychologist, Vol. 26, pp. 207-231. 1991.
- [13] Seong-Yun Kwo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2 x 2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pp. 213-240, 2008.
- [14] Jung-Hoon Leem, Effects of Blending Type of Online-Offline and Reflective Activity on Self-Regulated Learning and Learning Achievements in Higher Education Course Based on Blended Learn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 13(4), pp. 49-57, 2007.

신 명 희(Myong-hee Shin)

[정회원]



- 2008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학 박사
- 2006년 3월 ~ 2010년 8월 :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 2010년 9월 ~ 현재 : 한남대학교 교양융합대학 교수

<관심분야>

영어교육, 언어와 문화, 화용론